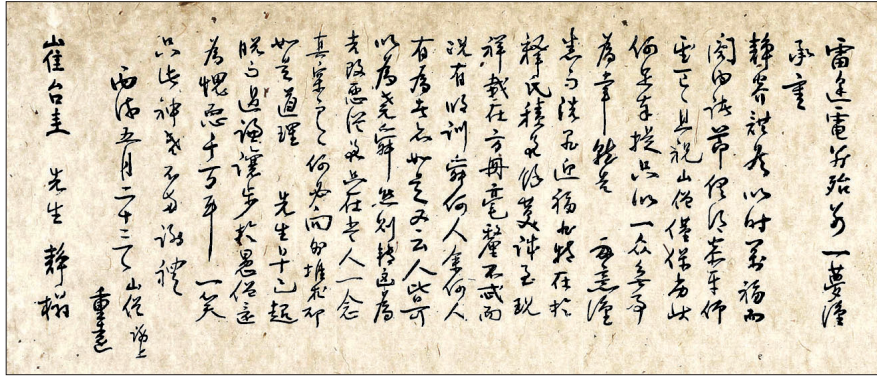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13)

“진실한 한마음이 악을 선으로”



최태규 선생에게 보낸 답서

번개처럼 만났다가 번개처럼 이별하게 되니 마치 한바탕 꿈을 꾸 듯합니다. 삼가 편지를 받고서 고요하게 요양하는 가운데, 존재가 시절에 따라 만복(萬福)하고, 집안도 두루 평안하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산승(한암선사)은 겨우 노쇠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산내(山內) 대중들이 무사하니, 그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입니다.

편지에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죄를 짓고 복을 맞이하는 것은 꼭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善)을 쌓으면 남은 자손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되며, 정성이 지극하면 상서로움이 나타난다는 말은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물며 명훈(明訓, 명확한 가르침. 맹자의 말)에 “순(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다 이와(순임금) 같이 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요순(堯舜)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흉(凶)함을 바꾸어서 길(吉)함으로 만들고 악을 고쳐서 선(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당사자의 한마음 진실함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도리는 선생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시고 또 초탈하셨는데 경양이 지나치셔서 우승(愚僧, 한암선사 자신을 가리킴)에게 묻고 있는 것뿐입니다. 천만번 부끄러울 뿐입니다. 한번 웃습니다.

이만 줄이며, 정신이 흐려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병술년(1946년) 5월 23일
산승 중원 올림

한암선사의 이 편지는 강원도 강릉에 사는 최태규(崔台圭) 거사에게 보낸 답서이다. 광복 다음 해인 1946년(丙戌) 5월 23일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보낸 것이다.

최태규 거사가 한암선사께 “어떻게 하면 죄를 씻어 버리고 복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것 같다. 이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선(善)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후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되(積善之家, 必有餘慶)”는 말을 인용하여 선행(善行)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은 불교에도 있지만, 특히 맹자의 말씀에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다 그와 같이 된다”고 하였고, 또 “사람은 노력하면 모두 요순(堯舜)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복 얻을 수 있는 방법’ 물음의 답
“선을 쌓으면 자손에 경사 불교 밖에도 있는 가르침”
(맹자)의 ‘등문공’ ‘고자’ 등 인용

것과 같이 “흉(凶)을 길(吉)로 바꾸고 악을 선(善)으로 만드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암선사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명훈은 좋은 명언을 뜻하는데, 여기서 인용한 문장은 모두 《맹자(孟子)》(등문공(文公) 상편(上篇)과 고자(告子) 하편(下篇)에 있는 말이다.

편지 첫 구에 “번개처럼 만났다가 번개처럼 이별하게 되니 마치 한바탕 꿈을 꾸 듯합니다.”는 대목은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다. 한편으로는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법)의 이치를 설하고 있다.



윤창희(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지구촌 이웃 돕기 보현행 20년 “자비나눔에 작은 보탬 됐으면...”

국제구호단체 JTS 박지나 대표

“지난 20년을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구호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특별히 자원봉사라 생각해 본적도 없고 내가 일을 한다 안 한다, 누구를 돕는다 안 돕는다 하는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열심히 일 하다보면 일이 커지고 또 일이 있으니 하게 되고 좋은 일이니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해외 구호를 마치고 돌아오면 주변에서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좋아서 한 일인데 인사까지 들으니 썩스럽기까지 했죠.”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사장부터 실무자까지 100%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JTS는 지난 20년 동안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면서 자비의 손길을 전해왔다. 1994년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를 시작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교육사업, 긴급구호 등을 펼쳐오면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JTS의 창립부터 현재까지를 함께해온 박지나 대표가 있었다.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그는 정교회 지도자 법륜 스님을 만나 1993년 인도 JTS 설립 당시 자원 활동가로 일했다. 이후 꾸준히 JTS의 해외 활동가로 일하다가 2000년 한국에 정착했고 2002년 JTS 해외사업 본부장을 거쳐 2011년도에 JTS 대표로 취임하며 해외 사업과 국제구호를 진두지휘해 오고 있다.

뉴욕에서 법륜 스님을 만나

미국 뉴욕에서 보석관련 기업의 지사장으로 일하던 박지나 대표는 소위 말하는 워크홀릭이었다. 26세에 입사해 새벽 2시에 퇴근하고 6시에 출근했고 주말도 없이 오로지 일에 몰두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3년 만에 지사장 자리에 오르며 고속 승진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싱글 여성 지사장이 거친 남자 부하직원들을 거느리기가 쉽지 않았기에 늘 강하고 나이든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퍼머에 올림머리를 했고 눈에는 살기를 띠며 일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하던 어느날 간절히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보았던 기와지붕의 절이 너무나 그리웠다. “어느날 수순문 끝에 뉴욕 맨하탄의 불국사를 찾아갔는데 아파트에 있는



2003 아프간 칸다하르 밀 분배 현장

절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기와지붕의 절이 아니라 실망해서 주춧거리고 있는데 한 보살님이 손수건을 깔아주며 거기 앉으라고 했죠. 그렇게 한 보살님과 인연이 되어 계속 절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보살님께서 뉴욕 플래싱 전등사에서 정찰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오는데 가보지 않았나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좋은 법문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보살님을 운전해 모셔준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두 시간을 운전해 절에 도착했는데 그때 법문을 하신 분이 바로 법륜 스님이었어요.”

하지만 박 대표는 당시 오랜 미국 생활에 영어가 익숙한 터라 한국어 법문에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법문 말미에 일주일 후에 ‘깨달음의 장’이 있으니 할 사람들은 신청하라는 얘기가 귀에 꽂혔다. ‘깨달음’ 그게 뭘

뉴욕서 법륜 스님 만나 깨달음의 장 이수

1994년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건립 당시

통역 봉사에서 2011년 대표 취임까지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등 8개 국가서

해외사업과 국제구호 활동 펼쳐

“JTS 내실은 일과 수행의 통일로”

까?’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고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1992년 가을 어느날, 박대표는 미국에서 최초로 열린 깨달음의 장을 이수하게 된다. “산 아래 있는 여관 하나를 빌려 17명이 함께 깨달음의 장을 했어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 나중에는 등을 구부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죠. 법륜 스님의 예리한 지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제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해 연말 박 대표는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 법륜 스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님께서 뜻밖에 마중을 나오셨고 당시 정교회 흥제 법당에 가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만배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인도에 학교를 짓게 되

었는데 통역이 필요하며 같이 가지고 하셨죠. 그렇게 통역으로 인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불가족 천민 지역 동계스와리

법륜 스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의 불가족 천민 지역 동계스와리였다. 그곳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올랐다고 하는 전정각산이 있는데 그 아래에서 20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농장을 하며 사는 열악한 곳이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던 마을, 자신을 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과 손을 스치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먹을 것이 없었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일반인은 거의 출입이 없었고 티베트나 스리랑카 등에서 온 순례객들이 오갈 뿐이었다.

법륜 스님은 이 마을에서 숙식하며 주민들과 학교를 지었고 통역을 맡았던 박 대표는 보드가야 호텔에서 출퇴근을 했다. “제가 20년 동안 전 세계의 오지를 많이 다녀왔지만 지금까지도 동계스와리 만큼 낙후된 곳을 보지 못했어요. 다들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렸고 택시마저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던 곳이었죠. 그러나 스님은 당시 마을에서 숙식했던 최초의 외국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짐승의 축사를 수리하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소똥을 발라 스님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스님은 그곳에서 침낭을 깔고 주무시면서 학교를 지었죠. 당시 그곳은 버려진 땅으로 재산의 가치가 없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선행의 기회를 주기 위해 10명의 땅을 보시를 받아 학교를 지었죠.”

보드가야에서 출퇴근했던 박 대표는 통역 이외에 또 다른 일을 시작했다. 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목욕시켜 옷을 입혀주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노동자 30여명만 밥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해놓으면 노동자들이 옆구리, 가랑이 사이로 자식들을 끼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집마다 술을 가져와 마을 아낙들과 함께 150~200명 분의 밥을 해 같이 먹게 되었죠. 또 한국에서 가지고 간 옷들로 아이들을 목욕 시키고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만큼 마을 사람들은 험 벗고 굶주려 있었죠.”

학교가 건립 되면 교사가 필요했는데 지역 전체 인구 1만명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용 졸업생 이가 고작 두 사람이었다. 이 둘을 교사로 채용해 나무 밑에서 수업을 했고 한쪽에서 공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드디어 1994년 1월



2014년 1월 수자타아카데미 20주년 기념식

지장보살님께서 대한민국 대구에 무량의 가피를 드리우시다!!

현지사 대구분원은 왜곡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21세기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는 영남권의 중추적인 정법 도량이며, 불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영험한 지장기도도량입니다!!



지장보살님 기도로 아들의 허리디스크가 완치되다

허리가 안 좋은 아들이 작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통증이 심해 쓰러졌는데 국군통합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허리디스크로 판명이 났습니다. 디스크가 파열되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수술 스케줄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현지사 대구분원에 전화를 드려 지장보살님 100일 기도를 올리고, 그날 뜬눈으로 밤잠을 새우면서 지장보살님만 찾았습니다. 수술해도 재발해서 완치가 어렵다고 하므로 정말 큰 수술 없이 완쾌해 달라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오전 내내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을 찾았습니다. 점심때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세한 건 가서 말하겠다고 일단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일이라 그런지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군통합병원에서 1년만에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와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들보고 크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 대구시 수성구 황금 1동 정미라

지장보살님 기도 및 공부하는 방법

매일 <지장보살본원경>을 1독 하고(분량이 많으면 몇쪽씩 나누어 읽는다)
흙부다라니를 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지장보살' 청명염불을 합니다.

대구분원 지장재일 안내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대구분원 재일행사 안내 : 음력 1일, 15일, 23(미륵재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영남대학병원정문앞) 053) 654-5557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
7월 6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3회제)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